

'10위권 산재대국' 주범 '과로사'

후진국 수준 못벗는 긴노동시간 탓...최근 오히려 늘어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직장에서 10만명이 다치고 2천명 이상이 죽는다. 이 숫자는 공식 집계일 뿐 실제 산재 발생은 이런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사용자들이 산재 발생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나라별로 산재 노동자 수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나라의 산재 발생률은 세계 10위 안의 상위권에 올라 있다.

산업재해 가운데서도 특히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누적에 따른 과로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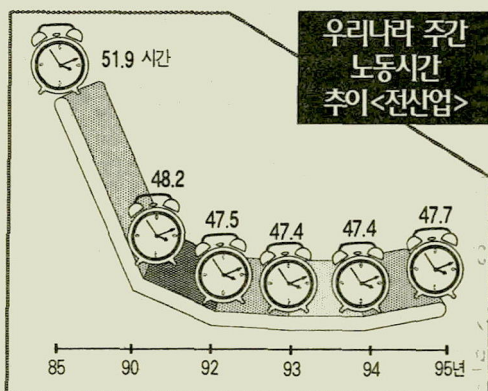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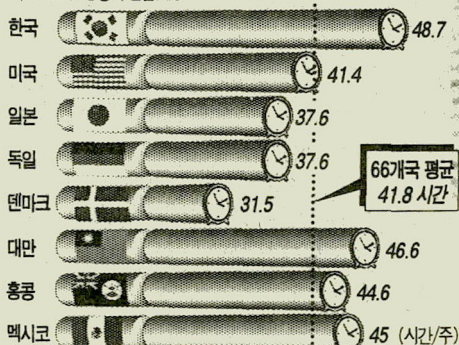
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에 따르면 94년도 산재사망 노동자 중 질병으로 숨진 5백3명 가운데 75.3%가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0대가 29.1%로, 40~50대가 전체 과로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나이에 과로로 죽음에 이르는 직장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와 과로사는 당연히 긴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두 축 가운데 80년대 말 이후 임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반해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가 올해초 펴낸 <노동통계연감 95>의 제조업 노동시간 비교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94년말 현재 48.7시간으로 조사대상 68개국 가운데 8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48.9시간)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 노동자의 삶의 질이 아직 수준 이하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68개국 제조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한국

주요국가의 주당 노동시간<94년,제조업>

자료:ILO 노동통계 연감. 95



보다 7시간 짧은 41.7시간이었다.

우리 나라와 경쟁상대국인 대만(46.6시간)이나 홍콩(44.6시간)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44.7시간)이나 케냐(43.0시간) 등도 한국보다는 노동시간이 훨씬 짧았다. 우리 나라는 노동시간이 외국과 비교해 매우 긴데다 최근 수년간 경기호황으로 오히려 실노동시간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0년대 이후 노동시간(전산업)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여왔으나 93년과 94년 주당노동시간이 47.4시간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95년에는 47.7시간으로 늘어났다.

오상석 기자